남원 발전 위한 지역발전포럼 개최

남원시-전북대, 정책 연구 성과 공유 · 실효성 있는 발전 방안 등 논의

남원시와 전북대학교는 20일 남원 이음센터에 위치한 전북대 남원발전연구소에서 남원발전을 위한 제2차 남원발전포럼을 개최했다.

전북대 남원발전연구소는 남원시와 전북대학교는 양 기관의 협력을 통해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지난해 8월 28일 개소하였고 권덕철 전북대 지역발전연구원장이 소장을 겸임하고 있다.

이번 제2차 남원발전포럼은 전북대 지역발전연구원에서 남원시를 대상으로 진행한 정책 연구의 성과를 지역사회와 공유하여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지역사회와 협력 강화를 통한 연구소의 역할 증대와 지역의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개최되었다.

남원시와 전북대학교는 20일 남원 이음센터에 위치한 전북대 남원발전연구소에서 남원발전을 위한 제2차 남원발전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는 최경식 남원시장,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 등 50여명 참석 △기관 이전 유휴부지 활성화 방안(전북대 황인섭 교수) △허브밸리 활성화 방안(전북대 안득수 교수) △통합돌봄지원을 위한 체계 구축 방안(전북대 김윤영 교수)의 3가지 주제 발표와 내용에 대해 각 기관의 전문가들이 종합토론을 통해 남원시 현안 해결과 지역발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권덕철 전북대 남원발전연구소장을 좌장으로 안순엽 남원시 기획조정실장, 김옥현 남원시 스마트농생명과장 직무대리, 권혜정 통합돌봄과장 등이 참석해 전문적인 의견을 개진하고 논의했다.

연구소는 올해 지역사회 현안 및 문제점 해결을 위한 연구를 추진하고 분기별 지역발전 포럼 개최를 통해 남원지역의 당면과제에 대해 지역주민들과 논의하는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최경식 남원시장은 "전북대 남원발전연구소는 양 기관의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당면한 문제 해결과 발전을 위한 다양한 연구활동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며, 남원시민들과 포럼을 통해 시 현안을 공유하고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군민 다양한 목소리 현장서 듣는다

최영일 순창군수, 11개 읍 · 면 순회 군정설명회 개최

최영일 군수가 2025년도 '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 비전 실현과 군민 의견수렴을 위한 군정설명회에 본격 나섰다.

지난 19일 풍산면을 시작으로 11개 읍·면을 순회하며 7일간에 걸쳐 진행하는 이번 군정설명회에서는 2025년도 군정 방향을 비롯한 주요사업들을 군민들에게 설명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할 예정이다.

첫 일정인 풍산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설명회에서 최 군수는 "'불망초심(不忘初心)'의 자세로, 처음의 다짐을 잊지 않고 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을 만들기 위해 더욱 정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지난해 주요 성과를 보고하며, 군민 삶의 질을 한 단계 더 높이기 위한 올해 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아동행복수당 확대, 일자리 3,380개 확보, 농민 기본소득 확대, 노인 이·미용비 지원, 청년종자통장, 경천·양지천 수변 정비사업 등 2024년 주요성과를 보고하고, 군민행복 실현을 위해 2025년도 추진하는 구체적인 사업들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최 군수는 이 자리에서 "지난 1월 8일부터 2월 18일까지 11개 읍면 320개 마을방문을 실시해 군민 삶을 피부로 느끼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보람도 크지만 짧은 시간으로 아쉬움도 많았다"면서 "바로 이어진 군정설명회를 통해 미처 다 설명하지 못한 군정 주요사업들을 설명드리고 소통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니 더욱 변화하고 발전하는 순창군의 도약을 위해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군정설명회 일정은 19일 풍산면을 시작으로, 20일 동계면, 21일 쌍치·복흥면, 24일 유등면, 25일 인계·구림면, 26일 금과면·순창읍에 이어 27일 적성·팔덕면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보건소, 금연구역 확대

남원시보건소는 담배로부터 안전한 남원을 만들기 위해 시민들이 흡연 예방 및 금연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금연 관련 법령 준수를 당부했다.

흡연율 개선을 위해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연중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흡연자가 금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난해 오투그란데 아파트가 세대주의 1/2 이상의 동의로 공동주택 금연구역 남원시 제1호로 지정된 데 이어 올해 1월에는 오투그란데디아트 아파트가 제2호가 지정, 올해 상반기 중 택시 승차대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확대된 금연구역을 포함한 지역에서의 흡연 행위 위반 시 과태료(5만 원~10만 원)를 부과해 간접흡연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눈높이에 맞는 콘텐츠를 활용하여 흡연폐해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한용재 소장은 "시민의 참여와 관심을 통해 담배 연기 없는 남원 만들기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농기센터, 농업인대학 교육생 모집

임실군 농업기술센터가 이달 27일까지 농가소득 향상 및 임실농업 발전을 이끌어 갈 전문 농업인을 양성하기 위한 2025년 임실군 농업인대학에 참여할 교육생 30명을 모집한다.

모집 분야는 복숭아(기초) 과정으로 결실 관리, 수확기를 제외한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매주 1회 총 70시간 과정으로 운영된다.

교육 내용은 복숭아 기초과정의 재배기술, 병해충 방제, 농약, 비료, 농기계 안전 사용, 농장 경영 등 체계적인 이론 및 실습, 현장(선도 농가 사례 중심 및 견학) 교육 중심으로 진행된다.

임실군에 거주하고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지가 있는 농업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공지된 소정의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팀에 방문하거나 이메일(dinohj@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임실=진홍영 기자

"반려견과 옥정호 붕어섬 함께 걸어요"

임실군, 동반 입장 시범 운영

이제는 형형색색 아름다운 꽃으로 물든 옥정호 붕어섬 생태공원을 사랑하는 반려견과 거닐 수 있게 된다.

군은 3월부터 4월까지 두 달간 옥정호 출렁다리와 붕어섬 생태공원에 반려견과의 동반 입장 시범 사업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시범 사업은 1500만 반려인 시대를 맞아 늘어나는 반려동물 문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임실군이 가장 핫한 관광지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옥정호 붕어섬 생태공원을 처음으로 반려동물에 개방하는 것이다.

그동안에는 붕어섬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장애인 보조견 제외)나 고양이 등 동물은 동반 입장이 불가했다.

하지만 군은 시범운영을 거쳐 실내 공간을 제외한 야외 지정 구간에 동반 입장이 가능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반려견 동행 시 관리사무소에서 동물보호법에 따른 등록 여부 확인을 마친 후 출렁다리를 건널 때는 반려동물 캐리어 및 유모차를 이용해야 출입이 가능하다.

출렁다리를 건넌 뒤 붕어섬 생태공원에서는 목줄을 착용한 반려견과 함께하는 산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용객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10kg 초과 중·대형견 및 맹견, 질병이 있는 동물은 출입이 제한된다.

아울러 배변 봉투를 지참해 반려견 배설물 처리를 해야 한다.

군은 시범운영 기간 현장 상황을 좀 더 꼼꼼하게 파악하고, 반려견 동반 출입에 대한 입장객들의 의견과 반려인들의 목소리도 청취할 계획이다.

시범 사업에 따른 불편 사항과 민원 등 의견을 수렴해 관리 방안 마련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아름다운 옥정호 수변과 봄꽃 향연이 펼쳐질 붕어섬 생태공원에서 반려견과 함께하는 산책까지 가능하면, 옥정호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심 민 군수는 "반려동물 양육 인구 증가와 동반 여행 수요 확대에 따른 관광지 조성 및 콘텐츠 발굴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임실 여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를 위해 오수 의견관광지는 물론 옥정호 등 지역 대표 관광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반려동물 콘텐츠를 개발해 나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지역 소식통

임실군,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예방 특별교육 · 집담회 실시

임실군이 지난 17일 임실군가족센터 재직 아이돌보미 17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특별교육 및 집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특별교육은 최근 타 시군에서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아동학대 유형과 특징에 대해 설명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교육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아동보호전문기관 유기용 관장을 초빙하여 아동학대의 유형, 신고 절차, 위기 시 상황 대처법 등을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교육했다.

집담회에서는 아이돌봄지원사업의 변경된 지침을 안내하고, 아이돌보미 간의 경험을 공유하며 아동 돌봄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심 민 군수는 "아이돌봄사업 종사자들과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아이돌봄사업을 발전시키고, 아동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다양한 교육과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진

순창군은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총 7억 2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20일부터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2004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와 굴착기다. 또한, 올해부터는 5등급 자동차 중 경유 이외의 연료를 사용하는 차량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 대상 차량은 순창군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돼 있어야 하며, 자동차 검사 유효 기간이 남아 있어야 한다. 또한, 정부 지원을 받아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이력이 없는 차량이어야 한다.

/순창=이양원 기자